디지털 인격이 겪는 특이한 전쟁

(역대상 18:1~17)

1.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2.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3.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4.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 대와 기병 칠천 명과 보병 이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백 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5.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이만 이천 명을 죽이고
6.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7.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8.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디지털 인격이 겪는 특이한 전쟁>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디지털 인격이 겪는 특이한 전쟁'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는 사람의 인격 됨은 디지털적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이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가지고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믿음이 완전하게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중단될 수 없기에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은 지속되어야 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계속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 생활화라고 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시계도 디지털시계가 있고 카메라도 디지털 카메라 아날로그 카메라로 구분이 됩니다. 십자가 생활화도 인격에 디지털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인격에 디지털 원리

를 적용하는 것은 0,1로 이루어진 이진법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인데, 이 디지털 원리를 통해서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꺼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만 켜지는 디지털 원리가 십자가 생활화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활성화되고 있는 삶에서는 참으로 특이한 전쟁이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쟁취나 성취를 위한 몸부림이 한 마디로 전쟁이기 때문이고 항상 경쟁이 따르고 경쟁에서 이겨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디지털 인격의 삶에서 완전히 다른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치러지는 특이한 전쟁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전쟁은 마음에서 갖고 싶은 것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디지털 인격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의 사람은 전쟁을 치르지만 바로 갖고 싶어 하는 것들에 반(反)하는 전쟁입니다. 이 특이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평강이고 진정한 가나안이고 회복된 에덴의 삶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과의 전쟁인 한 평강이 유지됩니다. 평강의 삶은 전쟁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특이한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특이한 전쟁은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위하여 전쟁하고 있을 때에, 갖고 싶은 것들에 반하여 전쟁을 하므로 평강이 주어지고 복지의 삶이 주어지고 에덴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에 반하여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삶에는 환란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임할 확률이 무한대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은 민족이 있는 가운데 최강국으로 부상합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다윗이 전쟁을 해서 이긴 민족만 해도 블레셋, 모압, 소바 사람, 아람사람, 에돔 등이 나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남서쪽으로는 블레셋 족속의 땅까지인데 블레셋이 이때 정복이 되고 북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일찍이 창세기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이 다윗에게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으로 이어지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다윗에게서 약속이 성취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주변으로 이방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약속의 땅 경계를 성취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관제와 내각을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의 통치 때까지는 사실 이스라엘은 부족동맹체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발전이 덜된 정치체계가 다윗에 이르러서 강력한 영도력 하에서 중앙집권체제로 확립이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 시절에도 사람들이 다윗시절의 전성기를 재현할 분을 메시아로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다윗이 모든 방면에서 전성기를 이루고 나라의 공의를 행하는 정치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연전연승에 관한 기록을 하면서 두 번이나 반복한 구절이 있는데 6절과 13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다윗이 전쟁 계획을 하고 블레셋 모압 에돔 소바 아람등과 전쟁을 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뒤따라 가셔서 다윗과 합세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할례 의식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례 의식이란 창17: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말은 라틴어로 "코람 데오(coram Deo)"라는 말로 coram은 '앞에'라는 뜻이고 Deo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으로 사는 게 할례 의식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제대로 해서 경건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핵심적 주안점은 언제나 삶의 순간에 존재의 순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속에 갖고 살아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질 때에 존재의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비교할 때에 이 사건은 먼저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아무리 급박한 문제로 내 몸에 암이 생겼어도 하나님이 먼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에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무엇이라도 들어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에 대한 충족감입니다.
분명히 몸에 암이 걸렸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만 존재의 순서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순서대로 문제의 단계들을 하나씩 해결하다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온전한 상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각과 몸을 장갑삼아 움직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 충족하고 만족한 상태가 마음으로 느껴진 뒤에야 내 생각과 몸의 행동이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계획하고 왕으로서 영토를 확장하고 싶은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합세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디지털 인격적 원리로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제로 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살았더니 하나님이 켜지고 나타난 일이 전쟁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켜지고 나타나신 일이 내부적으로 나라 안의 관제와 내각을 새롭게 세우고 정비하는 일로 나타났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업고

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위해서 다윗은 지속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얘기해 주는데 오늘 본문에 두 군데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 대와 기병 칠천 명과 보병 이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백 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라고 합니다. 소바 왕과 싸워서 병거 천 대와 기병 칠천 명과 보병 이만 명을 빼앗았는데, 병거 하나는 말 두 마리가 끌게 돼 있기 때문에 병거 천 대는 말 이천 마리입니다. 그리고 기병 칠천 명이면 한 사람이 말 한 마리를 탔으니 칠천 마리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리품의 말들을 다 끌어다가 백 마리만 남기고 발의 힘줄을 다 끊었습니다.

수11:6절에서도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라고 하셔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승리했을 때에 전리품으로 얻은 말의 발 힘줄을 끊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17:16절에서도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와서 왕을 구할 때 왕이 된 자는 말을 사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병거는 2차 대전 당시 핵폭탄이 실용화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물론 초기에 히로시마에 떨어지긴 했지만 그 당시 탱크가 왕인데 탱크와 같은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병거 천 대를 확보하게 되고 기병 칠천 명이 탈 수 있는 말들을 확보한 것은 정말로 마음 뿌듯한 일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은 국방의 의무와 영토 확장의 야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병거보다 마음을 뿌듯하게 해주는 다른 요소는 없기 때문에 모든 왕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갖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백 마리만 남겨 두었는데 이 말들은 노역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병거 이천 마리의 말과 기병의 칠천 마리의 말의 발 힘줄을 다 끊었습니다. 백 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의 힘줄을 끊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닐 것인데 이게 바로 다윗이 치른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왕들이 갖고 싶어서 꿈에도 그리는 것들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장갑삼아 끼시고 나가시는 전쟁에서의 승리가 없기 때문이고, 이 전쟁은 지속되어야만 하는데 이것이 디지털 인격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전쟁을 치르고 살아갈 때 갖고 싶어 하는 것들에 반하는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밥 때가 되어서 배가 출출할 때 눈에 띄는 주전부리들을 먹게 되는데 이때에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만 기다리면 맛있게 밥을 먹을 텐데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 먹고 싶으면 밥을 먹은 후에 먹으라고 하시는데 이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마음이 갖게 되면 하나님을 기질 수가 없고 하나님 맛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식전 주전부리와의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다윗도 다른 왕들처럼 병거나 기병들의 말들을 가짐으로써 뿌듯한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다음 전쟁에 나갈 때 혁혁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과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얻었다는 성취감에 대한 뿌듯함이 생기므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갖기 위해서 병거나 기병의 말들을 갖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말의 발 힘줄을 끊을 필요도 없었지만 말의 발 힘줄을 다 끊었습니다.

두 번째로 갖고 싶은 것들에 반한 전쟁을 다른 형태로 치르게 되는데 7절의 전리품 중에서 금방패나 놋을 취합니다.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바쳤다는 의미보다 내 소유권 영역 안에서 밖으로 밀어냈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바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성전건축에 필요한 금과 은과 놋을 조달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필요한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할 때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자 마19: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하십니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 청년이 계산 하지 못했던 것은 복음 신앙은 계산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계산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백억을 가진 부자라고 해도 무엇인가에 미치지 않고서야 한 달에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돈을 쓰며 얻는 만족감 이상의 것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따르고 부활로 따르고 승천까지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가졌음으로 인해서 뿌듯해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자신이 가진 돈에 반하는 전쟁을 치르라는 뜻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들에 반해서 모든 사람이 전쟁을 하면 부족한 것이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건희 씨의 재산이 주식이 변화하면서 3조 2천억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희 씨는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돈이 10조 가까이 되고 3조 2천억이 늘었습니다. 이건희 씨의 돈을 전부 풀면 우리나라 모든 대학생들의 학비가 해결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10조가 넘는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자들은 그렇게도 숫자를 좋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나 판검사나 변호사나 정치인들도 자

신들의 직업에 대한 사명에 충실하지 않고 오로지 돈에 충실했습니다. 모든 직업이 돈을 얻는 방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갖고 싶어 하는 것들에 반하여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동적으로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과 내가 연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은 애당초 눈에 들어오지도 않게 됩니다.
이러한 싸움이 일어날 때에 다윗의 전쟁과 국가의 체제 정비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100%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주체성으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은 세상에 대해 삶을 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2: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고 말한 것이 이와 같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 세상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장갑이 될 때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전쟁을 지속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 것으로 가지게 되면 충족이 일어납니다. 그 충족감 이후에야 나의 생각과 몸이 하나님의 장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장치가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지키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거울이자 내 행동과 말을 진단하는 청진기입니다.
율법을 말 그대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충족되면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장갑으로 끼시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나의 행동들이 율법과 계명에 어긋났다면 내가 착각하였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보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먼저 만족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디지털 인격적 원리의 삶입니다. 이 원리가 적용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갖고 싶은 것들에 반하는 특이한 전쟁을 하는 전사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디지털 원리를 인격에 적용한 특이한 전쟁의 전사들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